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감 및 상징적 위협감: 접촉경험 및 공동체의식과의 관계

류 승 아
경남대학교

김 경 미[†]
동명대학교

기존의 연구들은 비정신장애인이 느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및 차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신장애인이 느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실질적 위협감/상징적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접촉경험과 공동체의식을 선정하여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465명(평균 22.87세)을 대상으로 접촉경험 유무, 접촉대상, 경험을 통해 받은 인상(경험의 질), 공동체의식, 그리고 위협감을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실질적 위협감은 접촉경험 여부나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징적 위협의 경우에는 접촉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접촉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당 경험의 질을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험의 질이 실질적 위협감 및 상징적 위협감 모두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접촉경험 유무는 상징적 위협감만 설명하였지만, 공동체의식은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 모두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접촉과 공동체의식이 위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신장애인, 실질적 위협감, 상징적 위협감, 접촉경험, 공동체의식

[†] 교신저자 : 김경미, 동명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용당동) 동명대학교 사회과학관 511호, Tel : 051-629-2663, E-mail : kmkim@tu.ac.kr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신장애인을 위협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18년 ‘대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조사’의 결과,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정신장애인을 위협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위협감은 결국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그리고 낙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 또한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고, 이는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신장애인과 비정신장애인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비정신장애인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이나 가치관이 얽히지 않은 영역에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지만, 본인들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차별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근우, 서미경, 2012; 이민화, 서미경, 최경숙, 2016). 예를 들면, 비정신장애인은 병동에 수용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만, 정신장애인과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일(예, 결혼, 양육, 취업 등)은 쉽게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이민화 외, 2016). 이러한 이유에 대해 Meeus, Duriez, Vanbeselaere, Phalet 및 Kuppens(2008)는 그 대상 집단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위협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위협감은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소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탈북자,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다섯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살펴본 류승아

(2017)의 연구에서 각 집단에 대한 위협감은 다섯 집단 모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McLaren(2003)은 총 17개국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측정하였는데, 위협감이 높을수록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도 높았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들(예, 여성가족부, 2013; 최만식, 조용하, 2014; 황정미, 2016; Curseu, Stoop, & Schalk, 2007; Falomir-Pichastor, Munoz-Rojas, Invernizzi, & Mugny, 2004; Mannarini, Talo, & Rochira, 2017; McLaren, 2003; Meeus et al., 2008; Stephan, Renfro, Esses, Stephan, & Martin, 2005)은 위협감이 편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위협감은 소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꾸려는 개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Urbiola, Willis, Ruiz-Romero, & Moya, 2018). Urbiola 등(2018)의 연구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위협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다문화 관점이 이민자들에 대한 암묵적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지만, 반대로 높은 위협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문화 관점을 가지더라도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소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위협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위협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접촉경험과 공동체의식을 선정하였다. 통합위협 이론을 제시한 Stephan과 Stephan(2000)은 접촉이 위협감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접촉으로 인한 친근감이나 고정관념의 변화가 불안이나 두려움을 포함한 위협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자신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소수집단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정신장애인 재활의 최종 목표가 공동체 내에서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고려해볼 때, 접촉과 공동체의식은 정신장애인이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접촉과 공동체의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실질적 위협 및 상징적 위협

Stephan과 Stephan(2000)은 위협감을 실질적 위협(realistic threats)과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s)으로 분류하였다. 실질적 위협은 토지 및 일자리 또는 복지 정책 등의 공공재를 분배하는 등의 한정된 자원이나 재산을 다른 집단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Brown, 2017). 현실집단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을 제시한 LeVine과 Campbell(1972)은 부족한 자원을 경쟁하는 실질적 위협 상황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성가족부(2013)는 한국 사회의 소수집단으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들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직장이나 일터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직장 및 일터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여겨진다(김혜순, 이시철, 2014). 황정미(2016)의 연구에서는 실업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탈북자들에게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보여주었는데, 자신의 일자리와 관련된 민감한 상황에서는 경쟁적 관계에 놓

인 집단에 대하여 높은 위협감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상징적 위협은 외집단의 유입으로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정체성이 위협받는다 고 느낄 때 생겨난다. 상징적 위협은 외집단 구성원들의 종교, 문화, 전통, 언어 및 세계관 등으로 인해 자신의 집단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Brown, 2017). 상징적 위협은 상징적 인종차별주의 이론(symbolic racism theory, Kinder & Sears, 1981)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외집단의 도덕성이나 가치가 내집단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면, 상징적 인종차별주의 이론은 미국의 반흑인 편견(anti-Black prejudice)에 대하여, 백인 미국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미국의 전통 가치를 위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Rios, Sosa, & Osborn, 2018). 상징적 위협은 외집단을 자신의 내집단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독특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외집단과 거리를 두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Stephan, Ybarra, & Rois, 2016).

접촉경험과 위협감

Allport(1954)의 접촉 이론이 발표된 후 많은 학자들은 여러 맥락과 다양한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고, 접촉이 집단 간 편견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예, 김금미, 안상수, 2014; 류승아, 2012, 2017; 이민화 외, 2016; Corrigan, Larson, Sells, Niessen, & Watson, 2007; Hewstone & Swart, 2011; McLaren, 2003; Pettigrew & Tropp, 2006). 즉,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없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외집단의 구

성원을 실제로 만난다면 친밀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두려움이 감소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Couture & Penn, 2006; Link & Cullen, 1986).

Stephan과 Stephan(2000)은 통합위협 이론을 통해 접촉이 위협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McLaren(2003)의 연구에서는 이민자들과의 접촉경험이 많은 자국민들은 이민자 집단에 대한 위협감이 낮게 나타났다. 접촉이 위협감을 감소시키는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Lee(2001)와 Stephan 등(2002)은 친숙함과 호감의 관계로부터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예를 들면, 상대집단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걱정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어 집단간 불안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간 불안이 결국에는 상대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인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의 상황이 조성된다면, 즉 상대집단 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사고 및 행동이 예상 가능해지고, 또한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면 위협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주장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다(Paolini, Hewstone, Cairns, & Voci, 2004; Schlueter & Wagner, 2008; Tausch, Tam, Hewstone, Kenworthy, & Cairns, 2007).

접촉과 위협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간 또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예, Horenczyk, Jasinskaja-Lahti, Sam, & Vedder, 2013; Maisonneuve & Teste, 2007; Sirlopu & Van Oudenhoven, 2013), 정신장애인과와의 접촉 및 위협감에 대한 직접적인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접촉을 통해 친숙함을 느끼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면 상대에게 느꼈던 위협감이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과와의 접촉 역시 위협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직접적으로 위협감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접촉대상 및 접촉의 질과 위협감

접촉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정신장애인과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Alexander & Link, 2003). 정신장애인을 가족, 친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깝게 접촉한 경우는 다른 관계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적었다(곽정숙, 김윤정, 우승희, 2009; 류승아, 2012; 송수지, 김정민, 2008; Corrigan et al., 2001). 류승아(2012)는 비정신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가족 중 정신장애인이 있는 경우가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에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가까운 관계의 접촉 없이 공공장소에서만 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접촉대상에 따른 태도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상대를 가깝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거리감을 덜 느낄수록, 그리고 친밀감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어떤 관계로 접촉했는지를 중요 변인으로 삼고, 접촉대상에 따라 위협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접촉의 대상 외에 접촉의 질 또한 중요한 접촉 요인이라고 많은 연구들은 주장한다(김혜숙 외, 2011; 류승아, 2010;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Brown & Hewstone, 2005; Pettigrew & Tropp, 2006). 즉, 아무리 가까운 대상과 잦은 접촉이 이루어졌어도 그 관계의 질이 긍정적인 경험이 아니었다면 그들에 대한 태도나 견해는 부정적일 수 있다. 실제로 정신장애인과 접촉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는 이전의 호의적인 태도가 감소하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이 더 굳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Brunton, 1997). 또한, 고용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태도를 조사한 Hand와 Tryssenaar(2006)는 고용주가 과거에 접촉한 장애인에 대한 인상이 고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위협감을 조사한 백승대와 안태준(201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직접 그리고 자주 접촉했던 응답자들이 오히려 높은 위협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접촉경험 유무나 빈도만으로 위협감의 감소를 이끌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접촉한 대상에 대한 관계의 질, 즉 인상이 어떠한지를 알아봄으로써 관계의 질이 위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의식과 위협감

공동체(community)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공동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치와 신념 및 목표를 공유하는 문화적 일체감과 ‘우리’라고 느끼고 연대함으로써 갖게 되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집단(류승아, 2014, p.44)”을 의미한다. McMilan과 Chavis(1986)는 공동체의식의 핵심 요인으로 소속감(membership),

상호영향(influence), 통합과 욕구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및 공유된 정서 유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을 강조하였다. 소속감은 자신이 집단의 구성원으로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고, 상호영향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집단 또한 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합과 욕구충족은 개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자신의 집단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고, 공유된 정서 유대감은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경험에 대하여 정서적인 소통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McMilan & Chavis, 1986). 공동체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은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강가영, 장유미, 2013; 류승아, 2014, 2016; Gattino, De Piccoli, Fassio, & Rollero, 2013). 또한, 공동체의식은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사회 문제의 인식이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 및 사회적 관심 등과도 관련이 있었다(류승아, 2014; 박가나, 2009; Davidson & Cotter, 1989; Liu & Besser, 2003).

공동체의식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지만, 본 연구에서 이 두 변인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공동체의식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 문제의 인식이나 개선과 높은 관련성이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박가나, 2009; 한은영, 김미강, 2013; Liu & Besser, 2003) 및 봉사

활동(박재숙, 2010; 진성희, 이동주, 2010) 등이 공동체의식과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고,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소외집단(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게 나타났다(류승아, 2014). 이 결과에 대하여 류승아(2014)는 공동체의식의 요인 중 “상호영향, 욕구충족 및 정서적 유대 등은 외집단과의 협동 및 친밀감을 이끌어 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제로 작용(p. 47)”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자신이 속한 내집단만의 이익만을 바라고 외집단을 배타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단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내집단과 교류하는 외집단이나 내집단이 속해 있는 상위 집단의 발전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은 소외집단에 대한 위협감,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그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본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이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이 낮아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기본 전제인 접촉 및 공동체의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실질적/상징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먼저 접촉과 위협감과의 관계를 접촉의 경험여부 및 접촉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

고, 다음으로 접촉대상을 구분한 다음, 정신장애인과 접촉경험의 질이 위협감을 설명함에 있어 대상별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접촉경험 여부와 공동체의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분석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의 접촉경험 여부 및 접촉대상(가족, 친구/일터, 공공장소/기타)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실질적 위협, 상징적 위협)은 차이가 있는가.
2. 정신장애인과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접촉경험의 질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접촉대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3. 접촉경험 여부와 공동체의식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설문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몇 개의 지역(경남, 부산, 서울, 충남 등)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의 총 480명이 참여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5부를 제외한 4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평균나이는 22.87세($SD=1.95$)이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207명(44.52%), 여자는 251명(53.98%), 무응답이 7명(1.5%)이었다.

측정 도구

접촉여부 및 접촉대상

정신장애인과와의 접촉경험은 먼저, 접촉한 경험이 있는지의 접촉경험 여부를 질문하였고,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에 그 관계를 (1) 가족, (2) 친구 및 일터, (3) 공공장소, (4) 기타로 분류하여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접촉대상의 경우에는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를 한 집단에만 속하도록 하기 위해 Alexander와 Link(2003)의 분류방식을 참고하여 정신장애인과와의 접촉이 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쪽에 속하도록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1), (2), (3) 모두에 답을 한 경우에는 (1) 가족으로 분류하였고, (2)와 (3)을 복수 응답한 경우에는 (2)로 분류하였다. 그러므로 (3)에 속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및 일터에서의 접촉경험은 없고 공공장소에서만 정신장애인을 접촉한 경우에 해당된다.

경험의 질

경험의 질은 접촉경험이 있다고 답한 각 접촉대상에 대하여 ‘위에서 답한 당신이 만난 정신장애인에 대한 느낌은 어떠합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아주 부정적(1점)’부터 ‘아주 긍정적(7점)’의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실질적 위협

실질적 위협은 Stephan, Ybarra 및 Bachman (1999)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 중 3개 문항에 대하여 질문의 대상을 정신장애인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정신 장애인들은 우리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신 장애인들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들은 그들에 대한 정부/사회 서비

스 증가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부/사회 서비스는 줄어든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실질적 위협을 높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상징적 위협

상징적 위협은 Stephan 등(1999)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문항 중 3개 문항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정신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훼손한다”, “정신 장애인들의 도덕 또는 종교적 신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 “정신 장애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각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징적 위협을 높게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준(1998)이 개발한 공동체의식 척도(Sense of Community scale: SOC)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구체적인 예로는 “내가 대화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대상을 당장 A에서 찾을 수 있다” 또는 “만약 A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이 있다. 이 척도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및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Predictive Analytics Soft Ware (PASW: 이전 SPSS Statistics) 22.0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외에도 각 접촉대상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접촉대상에 따라 경험의 질이 정신장애인의 위협감을 설명하는지와 경험 여부 및 공동

체의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정신장애인의 접촉경험 여부 및 접촉대상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에 차이가 있는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 접촉경험 여부 및 접촉대상에 따른 위협감의 변량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가족 ^a (n=21)	친구/일터 ^b (n=106)	공공장소/기타 ^c (n=194)	경험없음 ^d (n=144)	F	사후검증
실질적 위협_전체	2.61 (1.26)	2.62 (1.25)	2.46 (1.24)	2.60 (1.33)	2.75 (1.33)	1.03	
세금부담	2.77 (1.48)	2.86 (1.39)	2.58 (1.42)	2.79 (1.57)	2.90 (1.44)	.91	
기여도	2.67 (1.51)	2.62 (1.36)	2.55 (1.49)	2.66 (1.56)	2.78 (1.51)	.51	
서비스	2.38 (1.35)	2.38 (1.40)	2.23 (1.27)	2.34 (1.35)	2.56 (1.40)	1.32	
상징적 위협_전체	2.22 (1.26)	2.10 (1.26)	2.06 (1.15)	2.11 (1.22)	2.52 (1.34)	3.92**	d>b, c
문화적 신념	1.95 (1.22)	1.86 (1.20)	1.68 (1.05)	1.86 (1.15)	2.29 (1.36)	5.98**	d>b, c
도덕적 신념	2.24 (1.44)	2.10 (1.41)	2.07 (1.35)	2.14 (1.44)	2.52 (1.50)	2.77*	d>b, c
사회적 관계	2.48 (1.57)	2.33 (1.39)	2.43 (1.54)	2.32 (1.57)	2.74 (1.58)	2.13 [#]	d>c

[#] $p<.10$, * $p<.05$, ** $p<.01$.

사후검증은 LSD기법을 사용하였음.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는 정신장애인의 접촉경험 여부 및 접촉대상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 462)=1.03, ns$). 반면, 정신장애인의 접촉경험 여부 및 접촉대상에 따라 상징적 위협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 462)=3.92, p<.01$). 사후 검증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M=2.52$)는 친구/일터에서 접촉한 경우($M=2.06$)와 공공장소/기타의 경우($M=2.11$)보다 상징적 위협을 높게 지각하였다.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상징적 위협에 대하여 각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문항에서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M=2.29$)이 친구 및 일터($M=1.68$), 공공장소/기타($M=1.86$) 등에서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F(3, 462)=5.98, p<.01$). 또한 정신장애인의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는 문항에서는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M=2.52$)이 친구/일터($M=2.07$), 공공장소/기타($M=2.14$)에서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았다($F(3, 462)=2.77, p<.05$).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생각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와 다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M=2.74$)이 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공공장소나 기타영역($M=2.32$)에서 접촉이 경험이 있는 집단의 점수가 제일 낮았다.

표 2. 접촉대상에 따른 접촉의 질이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인	대상	가족 (n=21)			친구/일터 (n=102)			공공장소 및 기타 (n=190)		
		B	S.E.	β	B	S.E.	β	B	S.E.	β
실질적 위협	성별	.59	.88	.19	-.61	.25	-.25*	-.04	.21	-.01
	나이	-.23	.26	-.26	.00	.06	.00	.01	.05	.02
	경험의 질	.22	.17	.28	-.22	.08	-.26*	-.28	.06	-.30***
	F		1.48			3.37*			6.22***	
	R ²		.21			.09			.09	
	Adj. R ²		.07			.07			.08	
상징적 위협	성별	-2.45	.56	-.78***	-.09	.25	-.04	-.20	.20	-.08
	나이	-.61	.16	-.66***	.01	.06	.01	-.04	.05	-.06
	경험의 질	-.43	.11	-.54***	-.16	.08	-.20*	-.18	.06	-.22**
	F		11.66***			1.26			3.54*	
	R ²		.67			.04			.05	
	Adj. R ²		.62			.01			.04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Durbin-Waston test 결과는 1.60~ 2.40으로 잔차 독립성이 검증되었음.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 접촉의 질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접촉대상별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별과 나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의 질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신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경우는 경험의 질이 실질적 위협감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다($\beta=.28, ns$). 그러나 친구/일터 ($\beta=-.26, p<.05$)와 공공장소 및 기타($\beta=-.30, p<.001$)의 접촉이 있는 집단의 경험의 질은 실질적 위협감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여주었다. 즉, 친구/일터와 공공장소 및 기타 장면에서 정신장애인과 직접적 접촉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수록 실질적 위협을 적게 지각하였다. 상징적 위협에 대해서 가족($\beta=-.54, p<.001$), 친구/일터

($\beta=-.20, p<.05$) 그리고 공공장소 및 기타 ($\beta=-.22, p<.01$)집단에서의 직접적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경험의 질이 상징적 위협감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졌다. 즉 가족, 친구/일터, 공공장소 및 기타 등 어떤 통로로든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할수록 상징적 위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장애인 가족을 둔 경우에는 여자보다는 남자가($\beta=-.78, p<.001$), 그리고 나이가 적을수록($\beta=-.66, p<.001$)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징적 위협감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과의 접촉 여부와 공동체의식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에 대하여 접촉 경험 여부는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였으나($\beta=.07, ns$), 공동체의식($\beta=-.13, p<.01$)은

표 3. 접촉경험 여부와 공동체의식이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실질적 위협			상징적 위협		
	B	S.E.	β	B	S.E.	β
성별	-.10	.14	-.04	-.04	.13	-.02
나이	-.01	.03	-.02	-.01	.03	-.01
접촉경험 여부	.19	.13	.07	.41	.13	.15**
공동체의식	-.24	.09	-.13**	-.22	.08	-.12**
F	2.49**			4.41**		
R ²	.02			.04		
Adj. R ²	.01			.03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접촉경험 여부는 1=있음, 2=없음으로 dummy변인으로 분석함.

Durbin-Waston test 결과는 1.86~ 1.95로 잔차 독립성이 검증되었음.

** $p<.01$.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낮게 지각하였다. 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징적 위협에 대하여는 접촉 여부($\beta=.15, p<.01$)와 공동체의식($\beta=-.12, p<.01$)이 모두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서 정신장애인과 직접적 접촉이 있는 사람은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상징적 위협을 낮게 지각하였으며,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상징적 위협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을 접촉경험과 공동체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것으로, 접촉경험과 관련하여 접촉의 대상 및 접촉의 질을 추가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 위협감에 대한 접촉경험 여부 및 대상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치상으로는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이 가장 높은 실질적 위협감을 보였고, 친구나 일터에서 만난 경우가 가장 낮은 실질적 위협감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정신장애인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되거나, 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은 접촉 여부 및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실질적 위협감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반박이 가능하고,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접촉 여부 및 접촉대상과 관계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상징적 위협의 경우에는 접촉경험이 없는 경우가 친구/일터 또는 공공장소/기타에서의 접촉 집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즉, 정신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신념이나 가치를 훼손하고, 종교적 신념 또는 사회적 관계를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는 지각은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확고하게 강하다는 것이다. 상징적 위협은 실질적 위협과 다르게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기 어려운 믿음이나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신장애인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상징적 위협의 경우에는 사실이나 정보의 전달보다 더 강하고 실질적인 중재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경험이 상징적 위협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과 직접적인 접촉경험이 그들에 대한 호감도나 친숙성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상징적 위협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직접적이면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접촉 개입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접촉경험의 질은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그들이 접촉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상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가 위협감을 해소하는 것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접촉경험 유무는 실질적 위협감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경험의 질은 실질적 위협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접촉의 질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한다. 가족이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는 경험의 질 자체가 실질적 위협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는데 추가 분석 결과, 가족이 정신장애인인 21명의 응답자들 중 경험의 질은 낮게(1-3점) 응답한 사람들의 75%가 실질적 위협을 낮게(1-2점)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상의 호불호가 실질적 위협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었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가족을 둔 응답자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이 누리는 이익이나 서비스가 그들이 받은 경험의 질(인상)과 연관성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정신장애인을 가족으로 두어 힘들었던 것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일 수 있으나, 가족이 받는 서비스나 권리에 대한 인식은 높을 수 있다. 또한 가족의 경우 다른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은 성별과 나이의 변수가 상징적 위협감을 설명하였다. 정신장애인 가족을 둔 응답자가 남자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상징적 위협감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의 응답자가 21명으로 그 수가 적었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후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접촉경험 여부는 상징적 위협감을 설명하였고, 공동체의식은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 모두를 설명하였다. 접촉경험 여부가 실질적 위협감을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적 위협감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공동체의식이 접촉경험 여부를 통제하고도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기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먼저, 공동체의식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내집단에 대한 소속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포함된 더 상위의 공동체에 소속된 다양한 집단이 함께 더 나은 삶을 영유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류승아, 2017; McMilan & Chavis, 1986). 그러므로 다양성을 지향하는 높은 공동체의식을 가진 비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집단을 멀리해야 하는 외집단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은 낮게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공동체의식과 이민자에 대한 편견 연구를 한 Mannarini 등(2017)은 공동체의식이 편견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범위를 재조정하여 외집단으로 분류한 상대집단을 내집단으로 변경하는 재범주화 과정(Gaertner & Dovidio, 2000)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annarini 등(2017)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자국민이 이민자 집단을 내집단으로 생각할 경우 공동체의식이 편견감소에 영향을 주었지만, 반대로 외집단이라고 설정한 이들은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편견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은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킬 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을 강조하여 진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서 고려해 볼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비정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위협감은 상호적인 것으로(Callens, Neuleman, & Varie, 2018),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접촉 또는 공동체의식을 통해 정신장애

인이 갖는 비정신장애인에 대한 위협감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정신장애인과의 접촉이 가족의 경우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21명이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가족의 경우에는 친구나 일터 또는 공공장소에 만나는 것과는 달리 매우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질문(예, 직접 부양하는지, 그 기간과 정도는 어떠한지, 중증도는 어떠한지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접촉경험 여부와 공동체의식이 실질적 위협과 상징적 위협에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설명량(*Adj. R²*)은 1%와 3%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협감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들에 대한 탐색도 후속 연구에서는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가영, 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곽정숙, 김윤정, 우승희 (2009). 치위생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9(7), 241-247.

김경준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금미, 안상수 (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3), 315-338.

김혜순, 이시철 (2014). 국가별 관심 편중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측정: 대구 달서구 사례의 실증 분석. *지방행정연구*, 28(1), 89-114.

류승아 (2010). 정신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 복귀는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감 영향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49-69.

류승아 (2012). 정신장애인과의 접촉경험이 정신장애인들의 직업능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재활학회*, 22(1), 51-70.

류승아 (2014). 대학 공동체의식이 개인의 안녕 및 사회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과 촉진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3), 43-60.

류승아 (2016). 청소년들의 과거 비행피해 경험과 공동체의식이 정서 및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11), 87-111.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박가나 (2009).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6(10), 273-306.

박근우, 서미경 (2012).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편견과 차별: AIDS, 수형자 사례 유형과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28(4), 383-408.

박재숙 (2010).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 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4), 157-182.

백승대, 안태준 (2013).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

- 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수지, 김정민 (2008). 대학생의 장애인 수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83-99.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민화, 서미경, 최경숙 (2016). 정신장애인에 대한 친숙함이 차별에 미치는 영향: 두려움과 도움의향을 매개로. *한국사회복지학*, 68(11), 75-96.
- 이자형, 박현준, 김경근 (2014). 청소년의 동성애 경험, 성의식, 동성애 혐오, 우울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19(1), 129-147.
- 진성희, 이동주 (2010). 온라인협동학습에서 공동체의식과 토론참여도 및 학습만족도 간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6(1), 65-87.
- 최만식, 조용하 (2014).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7(4), 1-31.
- 한은영, 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 43, 95-124.
- 황정미 (2016).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아태연구*, 23(2), 311-346.
- Alexander, L. A., & Link, B. G. (2003). The impact of contact on stigmatising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Mental Health*, 12, 271-289.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MA: Addison-Wesley.
- Brown, R., & Hewstone, M. (2005).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tact.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 255-34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own, R. (2017). *편견사회(Precjudice: Its social psychology)* (박희태, 류승아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10).
- Brunton, K. (1997). Stigm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 891-898.
- Callens, M., Meuleman, B., & Marie, V. (2018). Contact, perceived threat, and attitudes toward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evidence from a majority and minority perspective in Luxembourg.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0, 285-310.
- Corrigan, P. W., Larson, J., Sells, M., Niessen, N., & Watson, A. C. (2007). Will filmed presentations of education and contact diminish mental illness stigma?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3, 171-181.
- Corrigan, P. W., River, L., Lundin, R. K., Penn, D. L., Uphoff-Wasowski, K., Champion, J., et al. (2001). Three strategies for changing attributions about severe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Bulletin*, 27, 187-195.
- Couture, S. M., & Penn, D. L. (2006). The effects of prospective naturalistic contact on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4, 635-645.
- Curseu, P. L., Stoop, R., & Schalk, R. (2007). Prejudice toward immigrant workers among Dutch employees: Integrated threat theory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125-140.

- Davidson, W. B., & Cotter, P. R. (1989). Sense of commun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7*, 119-125.
- Falomir-Pichastor, J. M., Munoz-Rojas, D., Invernizzi, F., & Mugny, G. (2004). Perceived in-group threat as a factor moderating the influence of in-group norms on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135-153.
- Gaertner, S. L., & Dovidio, J. F. (2000).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Gattino, S., De Piccoli, N., Fassio, O., & Rollero, C. (2013). Quality of life and sense of community: A study on health and place of residen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1*, 811-826.
- Hand, C., & Tryssenaar, J. (2006). Small business employers' views on hiring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9*, 166-173.
- Hewstone, M., & Swart, H. (2011). Fifty-odd years of inter-group contact: From hypothesis to integrated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374-386.
- Horenczyk, G., Jasinskaja-Lahti, I., Sam, D. L., & Vedder, P. (2013). Mutuality in acculturation. Toward an integration.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221*, 205-213.
- Kinder, D. R., & Sears, D. O. (1981). Prejudice and politics: Symbolic racism versus racial threats to the good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414-431.
- Lee (2001). The mere exposure effect: An uncertainty reduction explana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255-1266.
- Levine, R. A., & Campbell, D. T. (1972). *Ethnocentrism: Theories of conflict, ethnic attitudes, and group behavior*. Oxford, England: John Wiley & Sons.
- Link, B. G., & Cullen, F. T. (1986). Contact with the mentally ill and perceptions of how dangerous they 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289-303.
- Liu, A. Q., & Besser, T. (2003).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improvement activities by elderly residents in small towns and rural communities. *Rural Sociology, 68*, 270-277.
- Maisonneuve, C., & Teste, B. (2007). Acculturation preferences of a host community: The effects of immigrant acculturation strategies on evaluations and impression 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669-688.
- Mannarini, T., Talo, C., & Rochira, A. (2017). How diverse is this community? Sense of community, ethnic prejudice and perceived ethnic heterogeneity.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7*, 181-195.
- McLaren, L. M. (2003). Anti-immigrant prejudice in Europe: Contact, threat perception, and preferences for the exclusion of migrants. *Social Forces, 81*, 909-936.
- McMilan, D., & Chavis, D.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Meeus, J., Duriez, B., Vanbeselaere, N., Phalet, K., & Kuppens, P. (2008). *Where do negative*

- outgroup attitudes come from? Combining an individual differences and an intergroup relations perspective.* Paper presented at the General Meeting of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Optajia, Croatia, July.
- Paolini, S., Hewstone, M., Cairns, E., & Voci, A. (2004). Effects of direct and indirect cross-group friendships on judgments of Catholics and Protestants in Northern Ireland: The mediating role of an anxiety reduction mechan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 770-786.
- Pettigrew, T. F. (1998). Intergroup contact theo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65-85.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 Rios, K., Sosa, N., & Osborn, H. (2018). An experimental approach to intergroup threat theory: Manipulations, moderators, and consequences of realistic vs. symbolic threat.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29*, 212-255.
- Schlueter, E., & Wagner, U. (2008). Regional differences matter. Examining the dual influence of the immigrant population on derogation of immigrants in Europ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49*, 153-173.
- Sirlopu, D., & Van Oudenhoven, J. P. (2013). Is multiculturalism a viable path in Chile? Intergroup and acculturative perspectives on Chilean society and Peruvian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7*, 739-749.
- Stephan, W. G., & Stephan, C. W. (2000). An integrated threat theory of prejudice.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 23-46). Mahwah, NJ: Erlbaum.
- Stephan, W. G., Boniecki, K. A., Ybarra, O., Bettencourt, A., Ervin, K. S., Jackson, L. A., et al. (2002). The role of threats in the racial attitudes of Blacks and Whi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1242-1254.
- Stephan, W. G., Renfro, C. L., Esses, V. M., Stephan, C. W., & Martin, T. (2005). The effects of feeling threatened on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559-576.
- Stephan, W. G., Ybarra, O., & Bachman, G. (1999). Prejudice toward immigrants: An integrated threat theor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2221-2237.
- Tausch, N., Tam, T., Hewstone, M., Kenworthy, J. B., & Cairns, E. (2007). Individual-level and group-level mediators of contact effects in Northern Irel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fi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6*, 541-556.
- Urbiola, A., Willis, G. B., Ruiz-Romero, J., & Moya, M. (2018). Does a multicultural perspective shape unbiased minds? The moderating role of outgroup threa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8*, 608-617.

논문 투고일 : 2010. 02. 24
1 차 심사일 : 2019. 02. 28
게재 확정일 : 2019. 05. 14

**The realistic threat and symbolic threat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The effect of contact and sense of community**

Seungah Ryu

Kyungnam University

Kyoungmi Kim

TongMyung University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reduc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our community. Studies have shown that the threat to people with mental illnes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study, we focused on contact experience and sense of community that are believed to influence both realistic and symbolic threat. We looked at the differences in threat depending on the type of contact (family, friends/coworker, public places, no contact) with people with mental illness. Next, if there is contact experience, we questioned that the quality of the experience could influence the threats in all types of contact. Finally, could contact experience and sense of community affect the threats? The total of 465 respondents were survey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alistic threat were not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tact, but that the symbolic threat were more higher people with no-contact experience than people with contact experience. The quality of experi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threats, except in the case of the family contact on realistic threat. Lastly, sense of community was analyzed as a significant variable for both realistic and symbolic threats.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the impact of contact and sense of community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people with mental illness, realistic threat, symbolic threat, contact, sense of community*